

청소년의 그릿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요인, 부모요인, 학교요인을 중심으로

장윤아¹, 김소영^{2*}

¹온세미로 상담센터 심리상담사, ²나나토리 사회적기업 심리상담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Grit: Individual Factor, Parent Factor, School Factor

Yoon-Ah Jang¹, So-Yeong Kim^{2*}

¹Psychology Counselor, Onsaemiro Psychology Counselling Center

²Psychology Counselor, Social Enterprise Nanatori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개인요인과 부모요인, 학교요인이 그릿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8)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 2,394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주의집중은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부모요인인 거부, 강요, 비밀관성은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교요인인 교사관계는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에 그릿에 미치는 요인들을 예측하여 후속연구에 제언하였다.

키워드 : 그릿, 개인요인, 부모요인, 학교요인, 자아 존중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parent factors and school factors of adolescents. To this end, 2,394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8)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elf-esteem and attention, which are personal factors of adolescents, have been confirmed to have a significant affect on the grit. Second, refusal, compulsory and inconsistency, which are the parental factors of adolescents, have been confirmed to have a significant affect on the grit. Third, teacher relationships, which are school factors, have been confirmed to have a significant affect on the gri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the grit in adolescence were predicted and suggested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Grit, Individual factor, Parent factor, School factor, Self-esteem

1. 서론

청소년들은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를 토대로 자아존중감과 주의집중을 증가시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면서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한 성취감과 희열을 경험한다.

자아존중감과 주의집중의 증가는 청소년 자신이 스

스로 존귀한 가치로 인정하는 기제가 된다.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은 자아존중감과 주의집중 증가요인으로 미래의 성취와 성공을 예측하는 그릿에 대한 관심증가로 귀결되는[1]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릿은 '꾸준한 노력(Perseverance of Effort)', '관심의 지속성(Consistency of Interest)'으로 구성되었으며, 건강한 그릿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역경, 고난, 실패를

*Corresponding Author : So-Yeong Kim(bluebluebank@naver.com)

경험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노력과 흥미를 오랜 기간 유지하는 힘을 가진다[17].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부정적 측면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인 양육태도,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자녀에게 무조건 강요 등의 요인은 청소년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 자신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서의 성장을 위한 도전을 위협하고 있어[2]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가정 내의 부모의 지지와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그것을 증진시키는 데 요인으로 보고 되었다[1,3-5]. 그리고 자녀의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부모는 억압과 강요보다 자녀의 자유로운 선택을 지지하거나 규칙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양육태도 또한 그것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되어 [6] 그것에 대한 관심을 시사한다.

반면 입시위주의 과도한 학업중심의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이 수동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장한다. 뿐만 아니라 성취감보다는 포기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교육환경의 현주소이다. 우리나라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사회로 입시경쟁도 치열하여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7], 자녀에 대한 억압과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살펴본바와 같이 학업중심의 교육환경은 자녀를 억압하고 강요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초래하여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8,9]. 또한 가정 내의 학습에 대한 성적 결과만을 중시하는 가정환경은 부정적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주의집중을 저해하는 학교요인도 주목해야 한다.

청소년기의 교사와의 관계, 또래 친구와의 관계 등 학교 환경도 그것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되었다 [10,11]. 학교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은 교사와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학업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야기되는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높은 그것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2] 도전의 동력이 된다. 이러한 도전의 과정에서 청소년은 바람직한 자아 존중감 형성과 주의집중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요인에서 교사 관계는 교사와 학생이 공유하는

심리적 공간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심리적·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획득하게 한다. 획득된 사회적 자원[12]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귀결되어 그것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13,14]. 또한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15], 하루 중 긴 시간 학교에 머무르는 청소년기는 또래와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여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 청소년기 중요 과업도 수행하도록 한다. [2]. 그리고 청소년과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학교생활을 만족해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고 되어[16], 긍정적인 관계에 대한 논의는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 가정 내의 부모와의 갈등,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그릿 수준에 따라 노력 여부와 목표의 유지가 달라질 수 있는 시기이다[7].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역경, 고난, 실패 극복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요인, 부모요인, 학교요인과 그릿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개인요인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부모요인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학교요인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주의집중, 부모요인인 거부, 따스함, 자율성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학교요인인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그것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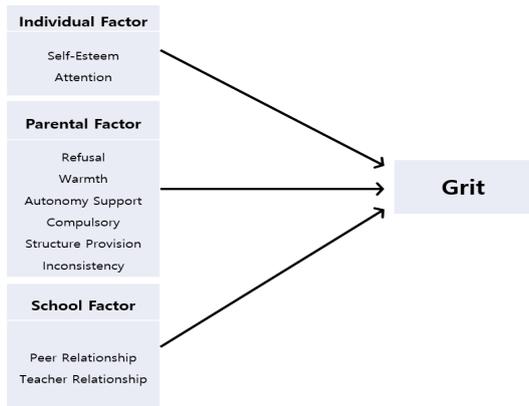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8) 자료이다. KCYPS 패널조사는 개별 면접 조사방식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연구 대상은 2018년 기준 2005년 출생인 중학교 1학년 학생 2,394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개인요인

2.3.1.1 자아존중감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가 개발한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0문항 중 요인계수 0.4 미만인 2문항을 제거한 후 8문항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8문항 중 1문항은 역코딩 하여 분석하였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alpha 값은 .872로 나타났다.

2.3.1.2 주의집중

개인요인인 주의집중은 Cho & Lim[20]가 개발한 주의집중 척도 중 KCYPS(2015)이 일부를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의집중 척도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문항 전체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주의집중력이 낮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alpha 값은 .828로 나타났다.

2.3.2 부모요인

2.3.2.1 양육태도

부모요인인 Kim & Lee[6]가 개발한 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태도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과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거부, 강요, 비일관성으로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4문항 중 요인계수 0.4 미만인 거부 1문항과 구조제공 1문항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스함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따스함이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alpha 값은 .882로 나타났다. 자율성 지지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을 지지해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alpha 값은 .861로 나타났다. 구조제공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구조제공이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alpha 값은 .767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거부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거부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alpha 값은 .857로 나타났다. 강요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강요가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alpha 값은 .757로 나타났다. 비일관성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비일관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alpha 값은 .793로 나타났다.

2.3.3 학교요인(친구관계, 교사관계)

2.3.3.1 친구관계

학교요인인 친구관계는 Kim & Yoo[21]가 개발한 또래 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관계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요인계수 0.4 미만 1문항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8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alpha 값은 .875로 나타났다.

2.3.3.2 교사관계

학교요인인 교사관계는 Kim & Kim[22]가 개발한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에착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관계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alpha 값은 .907로 나타났다.

2.3.4 그릿

종속변인인 그릿은 Kim & Hwang[23]이 개발한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릿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8문항 중 요인계수 0.4 미만인 1문항을 제거한 후 7문항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4문항은 역 코딩 하여 분석하였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그릿 영역이 높음을 의미하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alpha 값은 .719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 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개인요인, 부모요인, 학교요인들과 그릿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 1295명(54.1%), 여학생 1099명(45.9%), 성적은 '잘하는 편' 955명(39.9%), '보통' 983명(41.1%), '못하는 편' 421명(17.6%), '잘 모름' 35명(1.5%),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못한 편' 214명(8.9%), '건강한 편' 2180명(91.1%)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ection	n	%
Gender	male	1,295	54.1
	female	1,099	45.9
Grade	well	955	39.9
	ordinary	983	41.1
	fall	421	17.6
	no response	35	1.5
Health	unhealthy	214	8.9
	healthy	2,180	91.1

3.2 기술통계분석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1)	1.22	4.00	3.014	.489	.095	-.158
2)	1.00	4.00	2.173	.561	-.041	-.154
3)	1.00	4.00	3.262	.553	-.192	-.513
4)	1.00	4.00	1.680	.663	.800	.218
5)	1.00	4.00	3.211	.563	-.296	-.042
6)	1.00	4.00	2.152	.613	.094	-.257
7)	1.00	4.00	3.008	.575	-.333	.711
8)	1.00	4.00	2.059	.628	.171	-.245
9)	1.00	4.00	3.073	.491	-.138	.706
10)	1.00	4.00	2.749	.480	-.203	1.213
11)	1.00	4.00	2.631	.460	.176	.727

1) Self-Esteem 2) Attention 3) Refusal 4) Warmth
5) Autonomy Support 6) Compulsory
7) Structure Provision 8) Inconsistency 9) Peer Relationship
10) Teacher Relationship 11) Grit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3.014, 주의집중의 평균값은 2.173로 나타났고, 부모요인인 파스함의 평균값은 3.262, 거부의 평균값은 1.680, 자율성 지지의 평균값은 3.211, 강요의 평균값은 2.152, 구조제공의 평균값은 3.008, 비밀관성의 평균값은 2.059로 나타났다. 학교요인인 친구관계의 평균값은 3.073, 교사관계의 평균값은 2.749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그릿의 평균값은 2.631로 나타났으며, 주요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댓값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이 확보되어 측정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3.3 상관관계분석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모

든 변수들의 상관계수가 0.7 미만($r = -.544 \sim .635$)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p < .01$). 종속 변수인 그릇과 자아존중감,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 제공,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의 요인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주의집중, 거부, 강요, 비밀관성 등은 그릇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350**	1										
3)	.500**	-.253**	1									
4)	-.471**	.303**	-.516**	1								
5)	.511*	-.268**	.730**	-.538**	1							
6)	-.315**	.324**	-.350**	.518**	-.436**	1						
7)	.389**	-.222**	.550**	-.391**	.606**	-.299**	1					
8)	-.405**	.346**	-.444**	.567**	-.486**	.635**	-.341**	1				
9)	.442**	-.181**	.412**	-.306**	.412**	-.133**	.357**	-.223**	1			
10)	.403**	-.284**	.365**	-.231**	.408**	-.174**	.370**	-.214**	.394**	1		
11)	.438**	-.531**	.270**	-.205**	.298**	-.271**	.239**	-.297**	.249**	.384**	1	

1) Self-Esteem 2) Attention 3) Refusal 4) Warmth
 5) Autonomy Supprot 6) Compulsory
 7) Structure Provision 8) Inconsistency 9) Peer Relationship
 10) Teacher Relationship 11) Grit

3.4 다중회귀분석

청소년의 개인요인과 부모요인, 학교요인이 그릇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통제변수인 성별($\beta = -.071, p < .001$), 건강상태($\beta = .060, p < .001$)는 그릇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청소년이며, 건강한 편에 속한 청소년들이 흥미 유지와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개인요인인 자아존중감($\beta = .161, p < .001$)과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주의집중($\beta = -.448, p < .001$)은 그릇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과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은 청

소년들이 흥미 유지와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어 그릇이 높아진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B	S.E	β	t	VIF
Gender	-.063	.015	-.068	-4.219***	1.051
Health	.106	.026	.066	4.067***	1.046
Grade1	-.095	.022	-.079	-4.392***	1.300
Grade2	-.038	.016	-.040	-2.311*	1.214
Self-esteem	.194	.020	.207	9.688***	1.831
Attention	-.316	.015	-.385	-21.325***	1.312
Warmth	-.006	.020	-.007	-.292	2.424
Refusal	-.100	.015	-.143	-6.579***	1.914
Autonomy	.017	.022	.020	.764	2.824
Compulsory	-.057	.016	-.075	-3.497***	1.871
Structure Provision	.000	.016	-.001	-.030	1.705
Inconsistency	-.035	.017	-.047	-2.099*	2.059
Peer Relationship	.027	.018	.029	1.534	1.460
Teacher Relationship	.158	.018	.165	8.808***	1.417
F				117.430***	
R2				.409	
adjR2				.405	
Durbin -watson				1.919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요인인 거부($\beta = -.143, p < .001$), 강요($\beta = -.075, p < .001$), 비밀관성($\beta = -.047, p < .05$)은 그릇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거부하며, 강요하고 일관성이 없이 양육할수록 자녀는 흥미 유지와 노력을 지속하지 못하여 그릇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요인인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 및 따스함은 그릇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교요인인 친구관계($\beta = .029, p > .05$)도 그릇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사관계($\beta = .165, p < .001$)는 그릇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과 교사의 관계가 좋을수록 그릇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의 계수 값이 3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4.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부모요인, 학교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어동·청소년 패널(KCYPs 2018)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개인요인, 부모요인, 학교요인과 그릿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개인요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건강상태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 청소년이며, 건강한 남자 청소년들이 흥미 유지와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주의집중 변인 또한 그릿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고 주의집중이 높은 청소년들이 흥미 유지와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3]

둘째, 청소년의 부모요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 강요, 비밀관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 강요, 비밀관성은 자녀의 흥미 유지와 지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해석되며 선행연구 결과 [4,6,22,23]와 일치한다. 그러나 부모요인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릿과의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학교요인인 친구 관계, 교사 관계 변인과 그릿과의 관계에서 친구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관계 변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 [15]로 나타나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는 그릿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촉진을 위한 그릿의 중요성을 시사하여 그릿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입과 청소년들의 주의집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개입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은 청소년의 주의집중을 증가시켜 학습에 대한 흥미 유지와 학습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언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녀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인정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자세를 갖도록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과 교사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제언한다. 입시위주의 성적만 중시하는 교육환경은 긍정적인 관계형성보다 부정적인 관계를 초래하여 청소년의 흥미 유지를 저해할 것이다.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도록 하여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상 제시한바와 같이 청소년의 개인요인, 부모요인, 학교요인과 그릿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도 있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한 부모요인에서 자율성 지지와 구조제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서 가설의 일부는 기각되었다. 연구자의 예측과 달리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향후연구에서도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릿은 청소년 자신이 인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역경과 시련 극복을 위한 기제로 확인되었으나, 다양한 변인을 확인할 수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시련과 역경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개입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M. S. Kim, S. H. Lee, S. H. Paik & Y. S. Choi. (2015).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students' grit scores and their differences across sex and grade.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5), 297-322, UCI : G704-001586.2015.15.5.009
- [2] S. Y. Park & H. W. Chung. (2021). The effect of peer relationship, parenting attitude,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on middle school students' grit: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creativity.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81), 67-81. DOI : 10.12925/jkocs.2020.37.6.1752

- [3] Y. J. Park & S. I. Na. (2019).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school belonging, parent support,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and grit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51(2), 97-120.
DOI : 10.23840/agehrd.2019.51.2.97
- [4] S. H. Lee & J. E. Choi. (2019). A structural analysis on school-aged children's grit, growth mindset,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7(3), 155-168.
DOI : 10.7466/JKHMA.2019.37.3.155
- [5] T. M. Kim & E. J. Lee. (2017). The effect of the perceived parental self-control and parenting attitude on Korean adolescents' adjustment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31(1), 121-143. DOI : 10.17286/KJEP.2017.31.1.06
- [6] M. R. Lee & H. S. Jeon.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style (warmth, autonomy support, structure provision), grit,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multi-group analysis by school level.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 779-805.
- [7] H. S. Choi & S. Y. Ham. (2021).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behavior, grit, academic helplessness, and academic engag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3(1), 103-126.
DOI : 10.36431/JPE.13.1.6
- [8] H. W. Chung, Y. R. Kim & S. Y. Park. (2020). Exploring variables on grit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pplication of penalized regress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8), 673-693.
DOI:10.22251/jlcci.2020.20.8.673
- [9] J. E. Yoo, H. G. Kim & M. J. Rno. (2020). An exploration of the variables relating to middle school students' grit via a machine learning technique. *Group Mnet. Studies on Korean Youth*, 31(1), 157-182.
DOI : 10.14816/sky.2020.31.1.157
- [10] S. R. Lee & Y. L. Koo.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athematical anxiety test for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Society*, 23(4), 469-489.
DOI : 10.30807/ksms.2020.23.4.003
- [11] H. S. Cho. (2019). In the age of \$30,000, does social welfare guarantee a happy lif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3-22.
- [12] B. J. Jin & H. W. Chung. (2020).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relationship with friend and teacher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5), 141-165.
DOI : 10.22251/jlcci.2020.20.5.141
- [13] H. J. Lim & S. R. Lee.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parents, teachers, friends, and academic engagement.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1(1), 109-127.
DOI : 10.20972/kjee.31.1.202003.109
- [14] S. Y. Han & Y. H. Park. (2019). Predictors of early adolescents grit type and differences in flow, self-control, and conscientiousness by grit typ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ifted and Talented*, 18(3), 53-81.
DOI : 10.17839/jksgt.2019.18.3.53
- [15] M. S. Hong & S. Y. Lee. (2017). The effect of adolescents' relationship with the peers and the teachers on school life adaptation by the mediation of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4(1), 183-211.
- [16] M. H. Kang, Y. R. Yoo & J. W. You. (2014).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earning achievement, school satisfaction, perceived teacher attitude, and learning attitude for high school students of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5(1), 181-203.
DOI : 10.15854/jes.2014.03.45.1.181
- [17] M. S. Hong & S. R. Lee. (2019). Effects of grit and conscientiousness on academic performance: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0), 143-151.
DOI : 10.15207/JKCS.2019.10.10.143
- [18]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Inc.
- [19] B. H. Jo & G. H. Lim.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 729-746.
- [20] J. K. Kim & A. J. Yoo. (2002). Preadolescent communication skills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by institutionalization, sex, and ag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3(2), 121-135.

- [21] Y. Y. Kim. (2021).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and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mediating between adolescents' grit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2(2), 155-170.
DOI : 10.22143/HSS21.12.2.12
- [22] H. M. Kim & M. H. Hwang. (2015). Validation of the Korean grit scale for childre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35(3), 63-74.
- [23] J. Y. Choi & H. J. Lim. (2021). Predictors of academic resilience amo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academic engagement.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 921-950.

장 윤 아(Yoon-Ah Jang)

[정회원]



- 1994년 2월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문학사)
- 2017년 2월 : 한세대학교 가족상담학과(상담학석사)
- 2015년 2월~현재: 온새미로 심리상담연구소 전문상담원

- 2016년 3월~2019년 3월: 꿈과희망 심리상담센터 전문교수위원
- 관심분야 : 가족상담, 아동 청소년 상담
- E-Mail : unah28@naver.com

김 소 영(So-Yeong Kim)

[정회원]



- 1992년 2월 : 전주대학교 수학교육과(이학사)
- 2014년 2월 : 한세대학교 치료상담대학원 가족상담(상담학석사)
- 2018년 3월~2020년 2월: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2019년 3월~현재 : 주) 나나토리
- 관심분야 :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명상상담
- E-Mail : bluebluebank@naver.com